

호스피스 봉사자 과연 그들은 저승사자인가?

박 남 규 목사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사랑의교회 호스피스 담당,
한국교회호스피스협의회 회장)

오늘도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연약함을 섬기기 위해 가정으로, 병원으로 그리고 시설들을 찾아 섬기고 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섬김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듯 대상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고맙다는 인사까지도 극구 사양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한분 한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하는지를 매 순간 순간 진심으로 칭찬하며 격려하고픈 마음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시는 호스피스 사역들에게 썩 유쾌하지 못한 별명. "저승사자!" 아주 쉽게 웃음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그들이야 즐겁겠지만(?) 듣는 우리는 참으로 귀가 두 개이기에 흘러 보내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가 무슨 검정 도포를 걸친 것도, 그렇다고 뿔 달린 도깨비 방망이를 든 것이 아닌데...

나에게도 사역을 시작했던 십팔여 년 전, 황당하기 이를 때 없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심각했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방문 요청이 들어 왔다. 지체 없이 어떤 환자일까 기대감을 갖고 도착한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을 크게 뜨고서는 하는 말...,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황당하기 이를 때 없는 반응에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따지던 생각이 난다. 나만의 경험이겠는가? 이런 황당함은 미국 친구들도 "호스피스 와우! 대단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허구한 일 중에 죽음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좀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묻곤 한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대상자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도 뭔가 찝끔은 찝끔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래서 "교회호스피스 협의회" 모임에서 지난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단어, "호스피스"란 단어를 대 처할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 "전인치유"란 단어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단어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사역 자체에서 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호스피스에 대해 조금은 불만을 갖고 있는 약한 자들에게 쉽게 접근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죽음"에 집착한 호스피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만들어 간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은 데살로니가전서 1:5절 말씀처럼 큰 확신 있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호스피스 섬김, 또 환자들 이 떠나면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을 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회복된 능력 있는 "사별관리"가 동반된 호스피스 섬김을 행할 수 있다면 "저승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재앙 가운데서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회복을 줄 수 있는 호스피스"일 수 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호스피스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모든 사역과 기관들 가운데
오늘도 능력과 새 힘 주셔서 생명과 회복이 있는 호스피스로 감사가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